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경북자치경찰위, 민관 합동 점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경산시 압량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북경찰청, 경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진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정비와 연계해 추진된다.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